

## ‘가짜로 속이기’ 서사의 욕망과 주체

김유진\*

- I. 서론
- II. 가짜 귀신 서사의 욕망과 주체의 향방
  - 1. <종옥전>(鍾玉傳): 성애 욕망과 성장
  - 2. <미인계>(美人計): ‘인간-되기’와 주체의 회귀
- III. 가짜 신선 서사의 욕망과 주체의 향방
  - 1. <금강탄유록>(金剛誕遊錄): 초월 욕망과 파국
  - 2. <삼선기>(三仙記): ‘신선-되기’와 주체의 전회
- IV. ‘가짜로 속이기’ 서사의 소설사적 조망
- V.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 소설사에 보이는 ‘가짜로 속이기’ 서사를 대상으로, 욕망이 권력과 담론에 의해 생성·배치·관리되는 ‘욕망의 레짐’(régime)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짜로 속이기 서사는 ‘가짜 귀신’이나 ‘가짜 신선’이라는 서사 표지를 동원하여 주인공을 기만하고 개유(開諭)하는 역할극 구조를 지닌다. 본고는 ‘성애 욕망’과 ‘초월 욕망’이라는 두 가지 축이 기만극(欺瞞劇)이라는 서사적 기제를 통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분석함으로써 주체의 실존적 향방을 조망하였다.

성애 욕망은 개체의 필멸을 전제하고 사회적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체제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생산적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종옥전>과 <미인계>의 기만극은 주인공을 일시적으로 ‘벌거벗은 생명’의 상태에 놓이게 하여 욕망을 폭로하지만, 주체는 이 과정에서 겪는 수치심을 통

\*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조교수.

해 성애 욕망을 사회적 질서 안으로 재영토화하며 ‘성장’과 ‘회귀’의 경로를 걷게 된다. 한편 초월 욕망은 불멸을 꿈꾸며 사회적 재생산 체제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비생산적 욕망’으로 분류되어 강력한 제재의 대상이 된다. <금강탄유록>에서 주체는 기만극을 통해 자신의 초월 욕망이 도달 불가능한 허상임을 깨닫고 사회적 관계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파국’에 이른다. 반면 <삼선기>의 주체는 기만극의 수치심을 성찰로 수용하며, 초월 욕망을 지상선(地上仙)이라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재배치하는 ‘전회(轉回)’와 ‘실존적 망명’에 도달한다. 이러한 ‘가짜로 속이기’ 서사의 양상은 설화와 판소리 등 구비·국문 서사로 확산하며 변주된다. 절대 권력의 물리적 폭력이 사회적 망신으로 전이되거나, 주체의 신체를 그로테스크하게 노출하여 탈신비화하는 과정은 욕망을 통제하는 권력의 기술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가짜로 속이기’ 서사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부끄러움이라는 사회적 제재를 매개로 욕망하는 주체가 체제 내로 안착하거나 혹은 그 경계를 넘어 탈주를 시도하다 파국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저항과 통치의 서사라 할 수 있다.

핵심어: 가짜로 속이기, 가짜 귀신, 가짜 신선, 종옥전, 미인계, 금강탄유록, 삼선기

## 1. 서론

본고는 ‘가짜로 속이기’ 서사1)를 내포한 고소설 가운데 ‘가짜 귀신’ 서사를 보여주는 텍스트와 ‘가짜 신선’ 서사를 보여주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성

1) 줄고, 『한문소설 ‘가짜로 속이기’ 서사의 구조와 의미-〈종옥전〉(鍾玉傳), 『오유란전』(烏有蘭傳), 『혹기위귀』(惑妓爲鬼)를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70,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26에서 <종옥전>, 『오유란전』, 『혹기위귀』를 비교하며 ‘가짜로 속이기’ 서사를 분석한 바 있다. ‘가짜로 속이기’ 서사는 가짜 편지, 가짜 무덤, 가짜 귀신 등 일련의 서사 표지를 통해 주인공을 속이는 기만의 서사를 통해 남성 주인공의 경직된 도덕관념을 파훼하고 사회적으로 성장시키는 교양의 서사라 할 수 있다.

에 욕망과 초월 욕망이 서사 내에서 허용되거나 부정되는 방식을 살피는 한편, 욕망하는 주체의 향방을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짜로 속이기’는 가짜 귀신, 가짜 신선 등의 서사 표지(敍事標識)를 동원하여 일종의 역할극(役割劇)을 벌임으로써 주인공을 개유(開諭)하는 서사이다. 이 서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분기된다. 하나는 가짜 귀신으로 주인공이 기만당하는 가짜 귀신 서사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 신선으로 주인공이 기만당하는 가짜 신선 서사이다. 두 유형은 기만극(欺瞞劇)이라는 공통의 서사적 기제를 공유하면서도, 주인공이 지닌 욕망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가짜로 속이기’ 서사에서 욕망은 그 성격에 따라 성애 욕망과 초월 욕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욕망은 통제의 대상으로, 담론(discourse)을 통해 생성되고 배치되며 관리된다. 욕망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레짐(régime) 하에서 허용되는 욕망과 금지되는 욕망이 구분된다.<sup>2)</sup> 성애 욕망은 개체의 필멸(mortality)을 전제하는 욕망이다. 개체의 죽음은 성애 욕망을 통해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성애 욕망은 사회적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초월 욕망은 개체의 죽음 자체를 거부하는, 불멸(immortality)의 신선(神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는 사회적 재생산 체제의 근간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욕망에 해당한다.

이처럼 두 유형의 서사에서 기만극이 일으키는 부끄러움은 일종의 사회적 제재로 작동한다. 주인공이 그 부끄러움을 수용하고 탈주한 욕망을 재영토화한다면 주인공은 사회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반면 부끄러움을 내면화하여 욕망과 사회 사이의 불일치, 즉 해소될 수 없는 욕망의 아이러니를 자각하게 된다면, 주체는 파국을 맞이하거나 허구적 세계로의 전회(轉回)를

2) “권력과 성 사이의 관계는 부정적 방식으로만, 예컨대 거부, 배제, 거절, 차단, 또는 은폐나 가면에 의거해서만 확립될 뿐이다. (...) 이것은 우선 성이 권력에 의해 이항(二項) 체제, 즉 합법과 비합법, 허용과 금지 아래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것은 권력이 성에 대해 이해 가능성의 형태로도 구실을 하는 ‘질서’를 처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권력은 언어에 의해, 더 정확히 말해서 진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담론 행위에 의해 성을 공략할 지 모른다. 권력은 말하고, 권력의 말은 규범이다. (...) 권력의 목적은 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데 있다. 권력의 도구는 성의 제거와 다른 것이 아닌 징벌의 위협이다.”(미셸 푸코 지음, 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 1, 제3판, 나남, 2010, 98~99면.

겪게 된다. 결국 부끄러움에 대한 주인공의 태도, 즉 수치심을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서사의 결말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되는 것이다.

본고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짜 귀신 서사를 내포한 <종옥전>·<미인계>와 가짜 신선 서사를 내포한 <금강탄유록>·<삼선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각 서사에서 성애 욕망과 초월 욕망이 허용되거나 부정당하는 서사적 방식을 규명하고, 나아가 욕망하는 주체의 향방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가짜로 속이기’ 서사의 스펙트럼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는 한편, 욕망의 레짐이 서사 형식을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가짜 귀신 서사의 욕망과 주체의 향방

가짜 귀신 서사의 주인공은 성애 욕망을 지니면서도 처음에는 이를 부정한다. 기만극은 주인공이 귀신이 되었다 착각을 일으키게 하거나 귀신에게 홀린 상태를 만들어 별거벗은 욕망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주인공의 욕망을 폭로하고 웃음거리로 만든다. 이로써 주인공은 고을 사람들 전체가 목격하는 중인환시(衆人環視)의 상황 속에서 극도의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된다. 기만극을 경험한 주인공은 자신에게 성애 욕망이 있음을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욕망을 사회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만극은 성장과 교양의 서사로 기능하게 된다.

### 1. <종옥전>(鍾玉傳): 성애 욕망과 성장

<종옥전>의 주인공 종옥은 성애 욕망을 지니면서도 처음에는 이를 철저히 부정한다.<sup>3)</sup> 종옥은 혼인을 권유하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지만 완강히

3) 조은상, 「<종옥전>에 나타난 성적 불안 극복과 아버지 세계로의 회귀」, 『문학치료연구』 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6는 종옥의 여색에 대한 과도한 거부를 성적 불안으로 해석했다. 향란과의 사랑 놀음을 통해 억압된 욕망을 긍정하게 되지만, 숙부의 통제 아래 당위 규범인 ‘아버지의 세계’로 회귀한다고 보았다. 정혜경, 「감정과 이성의 역학, 인간학으로서 휘절소설」, 『국제어문』 74, 국제어문학회, 2017은 휘절 과정을 규범적 이성과 본능적 감정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보고 이를 단순한 풍자가 아닌 인간의 숨은 욕망을 들춰내어 존재의 회복을 시도

거부한다. 종옥의 혼인 거부는 단순한 만혼(晩婚)의 의지가 아니다. 그것은 성애 욕망 일반을 부정하려는 경직된 도덕적 태도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종옥의 이러한 경직된 태도는 처음부터 균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향란이 녹기금(綠綺琴)을 안고 암암리에 종옥의 눈길을 끌려고 했을 때, 종옥은 그녀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발끈하여 얼굴빛을 바꾼 바 있다. 종옥이 향란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알아챘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 이미 성애 욕망이 잠재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란의 반복된 방문에 종옥의 경직된 태도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로부터 향란은 저녁이면 들어갔다 새벽이면 물러 나오기를 여러 번 되풀이 하였지만, 끝내 능히 종옥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이러한 사이에 종옥도 또한 스스로 생각했다.

‘그녀의 용모가 저처럼 아름답고, 그녀의 언어가 저처럼 온순한데, 내가 만일 굳게 거절하고 엄하게 물리친다면 박복한 운명이라는 비난과 탄식은 비단 성산(星山)의 향아만이 아닐 것이요, 맺혀서 응어리진 원한을 회강(淮江)의 여인에게 서도 보게 되겠구나. 그녀가 만약 다시 온다면 나는 반드시 저버리지 않으리라.’<sup>4)</sup>

이 내면의 독백은 종옥이 자신의 성애 욕망을 처음으로 승인하는 순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승인은 아직 타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 종옥은 향란에게 ‘전날 밤의 일은 나도 또한 너를 시험해 보고자 하여 그런 것’<sup>5)</sup>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태도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욕망에 대한 종옥의 이중적 태도가 여기서 드러난다.

이후 종옥과 향란의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진다. ‘초당(草堂)으로 동방(洞房)을 삼고 서등(書燈)으로 화촉(華燭)을 삼아 서로 끌어안고 서로 즐기는’<sup>6)</sup> 장면은 종옥의 성애 욕망이 마침내 현실로 실현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하는 인간학으로 해석한 바 있다.

4) 睦台林, 『鍾玉傳』, 157쪽: “自是以後, 昏入晨退, 如是者數, 終莫能回其心. 於斯之際, 鍾玉爲自念曰: ‘渠之容貌, 如彼其美也, 渠之言語, 如彼其溫也. 我若堅拒牢斥, 則寡福之罵, 不獨星山之娥, 結蒂之怨, 將見淮江之女. 渠若更來, 吾必不負.’”(『鍾玉傳』, 127~128면) 이하 <종옥전>의 역문 및 원문은 신해진, 『朝鮮後期 世態小說選』, 월인, 1999를 활용한다.

5) “前夜之事, 我亦欲試汝而然也.”(<종옥전> 128면)

6) “以草堂爲洞房, 以書燈爲花燭, 相抱相樂.”(<종옥전> 130면)

그러나 이러한 욕망의 실현은 아직 사회적으로 승인된 것이 아니다. 종옥은 혼인이라는 공적 형식 없이 사사로운 애정 행각을 벌인 것이다.

‘가짜로 속이기’의 기만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개시된다. 가짜 편지, 가짜 무덤, 가짜 귀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서사 표지를 통해 종옥은 자신이 귀신이 되었다고 믿게 되고, 이로써 기존의 윤리적 강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가짜) 귀신이 된 향란은 ‘군산(君山)의 술’과 ‘요지(瑤池)의 복숭아’를 가져다가 종옥을 먹게 한다. 인간세계의 물건이 아닌 것으로 꾸며진 이 만남은, 종옥으로 하여금 자신이 더 이상 인간세계의 윤리에 구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착각을 강화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옥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귀신이 변화하여 사람이 되나니, 그 귀신과 그 사람은 근본이 하나<sup>7)</sup>’라는 논리를 펴며 가짜 귀신인 향란과의 동침을 정당화한다. 인간과 귀신의 차이를 부정하고 동일성의 논리를 통해 윤리적 금기를 스스로 해체한 것이다. 기만극이 완성되는 것은 종옥이 고을 사람 모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이후이다.

내 오늘에야 비로소 귀신이 되었음을 정녕코 알겠구나. 열 사람의 눈이 보는 땅에 서고 열 사람의 손이 가리키는 곳을 걸었으나,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사람에서 멀어졌도다.<sup>8)</sup>

종옥은 자신이 귀신이 되었다는 믿게 되면서 어떠한 규범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만들어진 자유’는 역설적으로 종옥을 중인환시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인다. 종옥은 향란과 함께 김공의 잔치 자리에 나타나 제멋대로 음식을 집어먹는다. 이때 김공이 갑자기 일어나 ‘많은 사람이 뻑뻑이 벌여 앉은 잔치에 어찌하여 이와 같이 제 멋대로이고 무례하느냐?’<sup>9)</sup>라고 지적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웃었다. 종옥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얼굴이 붉어졌지만 향란은 이미 간 곳이 없었다.

7) “人死爲鬼，鬼化爲人，其鬼其人，其本則一.”(<종옥전> 139면)

8) “吾今日始知爲鬼也，丁寧矣。立於十日所視之地，行於十手所指之處，而人莫我知，其於人遠矣.”(<종옥전> 142면)

9) “稠人列坐之宴，何如是放縱無禮也?”(<종옥전> 147면)

이 폭로의 장면은 ‘가짜로 속이기’ 서사의 핵심이다. 종옥은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보고 있었다. 폭로된 종옥의 욕망은 중인환시의 웃음 속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부끄러움의 경험은 단순한 창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사회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로 기능한다.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 성애 욕망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더이상 숨길 것이 없게 된 것이다. 다음날 김공은 병풍 뒤에서 향란을 불러내어 종옥에게 진실을 밝힌다.

옛부터 비록 색계상(色界上)에는 영웅절사(英雄節士)가 없다고는 하나 어찌 너처럼 심한 사람이 있겠느냐! 너는 향란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음을 알고서도 그 미혹됨이 이와 같으니 향란이 살아서 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너의 빠져들을 알 만하구나. 내가 지난 봄에 너에게 성혼하기를 권했는데도 네가 한사코 사양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향란을 시켜 너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였다. 너는 지금 이후로도 다시 혼인을 사양하는 마음이 있느냐? 향란이 죽지 않고서도 죽었다고 한 것은 내가 시켜서 그런 것이고 네가 귀신이 아닌데도 귀신이라 한 것은 향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것이다.<sup>10)</sup>

김공의 이 말에서 기만극의 목적이 명확하게 밝혀진다. 기만극은 종옥의 경직된 도덕관을 파훼하고 성애 욕망을 스스로 승인하게 만들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것이었다. 종옥이 ‘귀신이 아닌데도 귀신이라 믿은 것’은 향란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며, ‘향란이 죽지 않고서도 죽었다고 한 것’은 김공이 시켜서 비자발적으로 그런 것이다. 가짜들의 연쇄로 이루어진 기만극 전체가 종옥의 욕망을 일깨우기 위한 주도면밀한 기획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옥전>의 기만극은 성장과 교양의 서사라 할 수 있다.<sup>11)</sup> 종옥은 기만극을 경유하며 자신의 성애 욕망을 부정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승인하는 상태로 이행한다. 수치의 경험은 탈주한 욕망을 사회적으로 재포섭하는 계기가 되고, 그 결과 종옥은 처음에 거부했던 혼인을 수용

10) <종옥전> 185~186쪽: “古雖有色界上, 無英雄節士之言, 豈有如汝之甚者哉! 汝知香蘭之死而爲鬼, 而其蠢惑如此, 其在香蘭之生而爲人之時, 其沈溺可知也. 吾前春勸汝成婚, 而汝固辭不聽, 故吾使香蘭欲試汝心, 汝自今以後, 更有辭婚之心耶? 香蘭之不死而死, 吾之所嗾而然也. 汝之非鬼而鬼, 香蘭之所罔而然也.”(『鍾玉傳』, 148면)

11) 줄고, 앞의 논문, 176~177면 참조.

하게 되는 한편, 향란까지 첩으로 삼아 사회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성애 욕망을 충족하게 된다.

## 2. <미인계>(美人計): '인간-되기'와 주체의 회귀

<미인계>는 <종옥전>의 서사를 1919년에 구활판본 소설로 재현한 작품이다.<sup>12)</sup> <종옥전>과의 서사적 친연성은 분명하지만, <미인계>가 <종옥전>을 단순히 재현한 것은 아니다. <종옥전>이 가짜 귀신 서사에 전기소설의 기법을 한껏 투사하여 아화(雅化)된 서사를 보여준다면, <미인계>는 저술자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워 기만극의 의미를 독자에게 직접 해설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미인계>가 단순히 욕망의 폭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만극을 통한 주체의 회귀와 성장에 서사적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인계>의 서문은 작품 전체의 서사를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이 소설 중에 김종옥은 이팔슈지(二八秀才)나 성질이 건강호 중렬심으로 쥬야를 불페호고 친구학문을 공부호야 사름에 싱스와 귀신에 변환을 연구호앗스미 누구던지 디호야 언론히면 가위 도덕 박스라고도 호고 정직 군즈라고도 홀 만홀 즈격이나, 뜻밧게 절디가인 옥향란(玉香蘭)에 연약호고 유순호 쥬티로 여취여광케 호야 무한 농락홀 썩에 옥향란에 한몸이 죽어 귀신도 되고 귀신이 도로 스라스름도 되고 또 묘란(香蘭)이란 기성도 되어 천티만상으로 수십 겹 미혼진을 베푸러 싸지게 호앗스니, 이것이 무슨 계교냐 하면 미인계(美人計)라 호는 것이니, 고왕금리에 영웅렬사와 문장지스가 미식을 친합호야 마음을 상치 아니호 지 업스니 엇지 탄식지 아니호리오.<sup>13)</sup>

12) 박상석, 『한문소설 <鍾玉傳>의 개작, 활판본소설 <美人計> 연구』,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에서 <미인계>가 <종옥전>의 개작임을 최초로 밝혔다.

13) <미인계>, 1쪽. <미인계>의 원제는 '신출괴물 미인계'로, 표지에는 '新小說'로 되어 있지만 한문소설 <종옥전>을 국문으로 번안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번안의 과정에서 주변 인물이 늘어나는 한편, 종옥이 귀신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서사가 가짜 귀신 향란을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서사로 대체되었다. 판권지에 따르면 著作兼發行者 金東緝, 發行兼發賣所 德興書林으로 1919년(大正 8) 초판이 발매된 것으로 확인된다. 본고에서 인용하는 <미인계>의 원문은 『(開化期文學)新小說全集』 18, 啓明文化社, 1987, 169~244면에 영인된 1920년 재판본이다. 단, 인용문 쪽수 표기는 영인본이 아닌 원문의 것으로 한다. 인용문의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인용자가 붙인 것이다.

종옥은 ‘사람의 생사와 귀신의 변화를 연구한’, 즉 이론적으로는 귀신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이다. 그럼에도 그는 ‘죽어 귀신도 되고 귀신이 도로 살아 사람도 되고’ 나아가 묘란이란 기생도 되는 향란의 ‘수십 겹 미 혼진’에 빠져든다. ‘미인계’라는 병법의 용어를 서사 제목으로 삼은 것은 기만극의 기획자인 김공의 시좌(視座)를 전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옥전>에서 기만극의 기획자인 김공의 존재가 서사의 배후에 머물렀다면, <미인계>에서는 기만극 자체가 병법으로 명명되고 그 전략적 의도가 서사 전면에 배치되고 있다.

<미인계>에서도 가짜 귀신 서사의 핵심적인 서사 표지들은 동일하게 등장한다. 가짜 편지, 가짜 무덤, 가짜 귀신의 순차로 벌어지는 기만극은 동일하나, 종옥이 귀신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내용은 탈각된다. 대신 가짜 귀신 향란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종옥의 노력이 서사적 긴장을 만들어낸다.<sup>14)</sup> 종옥은 향란에게 ‘귀신은 신선과 한 가지니 내가 오늘야 세상에도 신선이 있는 줄 알겠다. 그러하나 귀신이 양기를 가까이 한 지가 얼마 동안 이라야 아주 사람이 되느냐’고 묻는다. 종옥은 귀신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향란의 말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종옥은 침상에서 향란다려 왈, “귀신은 신선과 한 가지니 내가 오늘야 세상에도 신선이 있는 줄 알겠다. 그러하나 귀신이 양기를 갖가이 혼 지가 얼마 동안 이라야 아조 사람이 되느냐?”

향란 왈, “신선이나 귀신이나 사물에 종류는 맞참가지오미 사람이 신선도 되고 귀신이 사람도 되는데 귀신은 양기를 통혼 지 스십구일만 지나면 오십일부터는 사람이 되야 음식과 거처가 여상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법이지오. 첩이 지장보살 전에서와 후토비인 전에서 두 달 수유를 얻어 가지고 세계에 나올 때에 량군을 만나 이통혼 심정이나 말흐겟노라 남공흐였는데 이제 량군의 스정을 의외지 못흐야 사통혼 죄과를 범흐였스오니 아조 사람이 되야 인흐야 세계에 멈우루면 관계가 업거니와 량군피셔 만일 중간에 길을 곳쳐 날수를 치워주지 안이시면 첩은 사람도 되지 못흐고 신명에게 벌역만 밧을 터이오니 심분 주의흐 오서 빅년동락흐게 흐십시다.”<sup>15)</sup>

14) 박상석, 앞의 논문, 249면에서 ‘귀신 소동’을 대중예술에서 즐겨 사용되는 ‘서스펜스(suspense) 기법’이라 한 바 있다.

<종옥전>에서는 인간과 귀신의 근본이 하나라는 추상적 논리로 양자의 교환을 정당화했다면,<sup>16)</sup> <미인계>에서는 49일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귀신의 ‘인간-되기’라는 서사적 목표를 분명히 한다. 기만극의 절정은 ‘저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는 대목에서 명확해진다.

종옥에 숙부 김성진씨는 문장 학소으 풍류장부로서 그 족하의 형실을 사랑흐 면서도 또흔 사름의 정리 밧기라. 심각흐고 그 중정을 시험코져 호야 병버에 쓰 는 미인계를 형홀 시 모락이 한량업는 옥향란을 식혀 귀신이 출몰호는 미혼진을 베풀고 종옥을 진 속에 잡아너어 혼이 히미흐게 호여 늦코 영문에 놓히 안져 제 절로 와서 항복호려는 종옥을 기다리는데 영문도 몰으는 종옥은 미혼진에 빠져서 갑옷을 벗고 향서를 울니려 가더라. 대저 향란의 황홀호 형동은 귀신과 흡사 호고 수명의 턴연호 반간은 귀신도 난척이오 김공의 비밀호 호령을 드른 관속들의 감히 루설치 못호는 거동을 보건디 종옥이 비록 총명호 사름이나 엇지 능히 씨닷겟는가.<sup>17)</sup>

기만극 전체를 방법으로 설명하는 서술자의 해설은 <종옥전>에는 없는 <미인계>만의 특징이다. 김공은 ‘영문에 높이 앉아 종옥이 스스로 와서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장군’으로, 종옥은 ‘미혼진에 빠져서 갑옷을 벗고 향서를 울리는 패장’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방법적 비유는 기만극을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주인공의 욕망을 해방시키기 위한 주도면밀한 전략으로 만든다.

폭로의 순간 역시 <미인계>에서 보다 복잡한 층위로 구성된다. <종옥전>에서 향란이 사라지고 김공이 기만극의 전모를 밝히는 방식으로 단선적 폭로가 이루어졌다면, <미인계>에서는 ‘묘란(杻蘭)’이라는 인물을 추가로 등장시켜 폭로의 과정을 이중화한다. 묘란은 ‘9/10은 향란, 1/10은 묘란’인 존재로, 묘란은 종옥에게 ‘묘(杻)는 ‘향(香)자에서 머리 풍지를 걷은 것이라 말함으로써 자신이 곧 향란임을 알리지만 종옥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 기만극의 허구성이 이미 눈앞에 드러나 있음에도 종옥이 이를 간파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아직 미혹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5) <미인계>, 36~37면.

16) 줄고, 앞의 논문, 160~162면 참조.

17) <미인계>, 58면.

폭로의 완성은 향란의 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향란은 ‘속는 사람이 어리석을지언정 속인 사람은 나무랄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은 기만극의 책임 소재를 종옥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다. 속인 자가 아니라 속은 자가 어리석다는 역설 속에서 종옥은 비로소 자신의 욕망과 마주하게 된다. 종옥은 ‘향란을 험할 일이 아니니, 무슨 낮으로 숙부를 뵈고 무슨 염치로 사람을 대하냐’라고 말하며 극도의 부끄러움을 고백한다. 이 부끄러움은 단순한 창피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부정해 온 성애 욕망의 존재를 타인의 시선 앞에서 공개적으로 승인하는 수치의 경험이다.

기만극의 전모가 밝혀진 이후 숙모의 ‘향란의 죄는 숙부의 명이니 죄가 아니다. 종옥은 서울에 가서 혼인하더라도 향란을 버리지 말라’는 말은 기만극이 목적인 바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는 기만극의 목적이 종옥의 성애 욕망을 사회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실현하게 만드는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말이다. 기만극을 경유한 종옥은 글공부를 재개하고 서울로 올라가 재상 노종의 딸과 혼인하는 한편 향란을 첩으로 맞아들인다.

<미인계>의 결말부는 이러한 성장의 서사적 결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종옥은 진사를 거쳐 대과에 합격하고 예문제학과 경상감사를 역임하며 팔남삼녀를 두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리고 강원감사가 되어 기만극이 벌어졌던 곳으로 돌아온 종옥은 기만극에 참여했던 인물들, 즉 가짜 무덤을 알려준 사령과 부적을 만든 도사에게까지 상을 내린다. 종옥이 ‘내가 거짓 말을 하였기로 오늘날 상이 있는 것이니 그런 거짓말 공부를 하여 이 다음에 상 타먹을 길을 닦거라’라고 말하며 웃는 장면은, 기만극으로 인해 경험한 수치를 온전히 내면화하여 그것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은 주체의 면모를 보여준다.

저술자는 말하기를 김공은 정디치 안임이 안이로디 미인계를 만드렸고 종옥의 총명치 안임이 안이로디 미인계에 빠졌스니 미인계를 만든 사람은 미인계의 빠지 〃 안이홀 사람이오 미인계에 빠진 사람은 미인계를 만드지 못홀 사람이라. 이로 보면 종옥의 총명함이 김공의 정대함을 싸루지 못홀찌니 저술자는 잘하리 김공의 호식함을 비울지언정 종옥에 폄식함은 비우지 안캣다 호였노라. 넓은 턴하에 총명흔 즈계들은 김공과 종옥의 스적을 보고 경계홀지이다.<sup>18)</sup>

기만극을 만드는 자와 기만극에 빠지는 자는 다른 인간이라는 저술자의 말은, 기만극이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욕망의 지배체제 속에 놓인 주체들 사이의 길항 관계임을 드러낸다. 이 길항 관계 속에서 종옥이 기만극의 전모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수용하는 것은, 탈주한 욕망이 재영토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9)</sup> 종옥은 수치의 경험을 계기로 다시 인간 세계의 질서 안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 복귀의 경로는 글공부의 재개, 혼인, 과거 급제, 관직 수행으로 이어지는 사대부적 성취의 서사로 구체화된다. 기만극에 참여했던 인물들에게 상을 내리고 웃음으로 과거를 갈무리하는 종옥의 모습은, 욕망의 탈주를 경험한 주체가 그것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 정상 세계로 온전히 귀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인계>의 ‘가짜로 속이기’ 서사는 ‘인간-되기’의 서사, 즉 욕망하는 주체가 기만극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직면하고 마침내 사회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그것을 실현하며 정상 세계로 귀환하는 성장과 교양의 서사가 근대적으로 재현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가짜 신선 서사의 욕망과 주체의 향방

가짜 신선 서사의 주인공은 초월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기만극은 마찬가지로 주인공을 ‘벌거벗은’ 상태에 놓이게 하여 욕망을 폭로하고 웃음거리로 만든다. 그러나 가짜 귀신 서사와 달리, 이 폭로는 기만극을 기획하고 참여한 내부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 기만극을 경험한 주인공은 자신의 초월 욕망이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 욕망이 허상에 불과하다

18) <미인계>, 75면.

19) 김영미, 『수치심의 정동으로 읽는 고전 서사-열녀 이야기와 궤절소설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89, 국어문학회, 2025는 궤절소설 속 남성의 ‘알몸 망신’을 수치심의 정동(情動)으로 보았다. 열녀 서사의 여성들이 수치심으로 자살이라는 과국을 맞이하는 것과 달리, <종옥전>의 남성 주체는 수치심을 통해 경직된 사고를 개과(改過)하고 과거에 급제하는 등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서사로 나아간다고 분석했다. 수치심이 젠더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 결과 기존 남성 중심의 성 이념을 공고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는 자각, 나아가 가족들에게까지 경멸당하는 극도의 수치심은 주인공을 이 세계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만든다. 그 결과 주인공은 죽음에 이르거나 허구의 세계로 이탈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 1. <금강탄유록>(金剛誕遊錄): 초월 욕망과 파국

<금강탄유록>의 주인공 김생은 초월 욕망, 즉 신선(神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주체이다. 초월 욕망은 개체의 필멸을 거부하고 불멸의 존재가 되려고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생산 체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금강탄유록>의 ‘가짜로 속이기’ 서사는 바로 이 초월 욕망이 어떻게 기만극을 통해 정치되고, 나아가 주인공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끄는지를 보여준다.<sup>20)</sup>

김생은 금강산에서 신령스러운 스님과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회양(淮陽)의 수령이 된 친구 신생(申生)에게 꺼낸다. 이는 김생의 초월 욕망이 오래전부터 잠재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단순히 금강산의 풍경을 유람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령스러운 스님, 즉 신선과의 접촉을 통해 초월적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신생은 이러한 김생의 욕망을 간파하고 즉각 기만극을 기획한다. 신생의 계획은 치밀하고 주도면밀하다.

신생은 이어서 말했다. “김생이 오면 필시 너를 찾을 텐데, 내가 김생에게 네가 신선이 되었다느니 운운하면 김생은 그 말을 믿고 너를 찾으러 금강산에 가려 하겠지. 그때 나는 유능한 아전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 둘을 뽑고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아이 둘을 뽑아서 이들을 먼저 산등성이에 올라가 있게 해 두었다가 이리이러하게 하도록 하려 한다. 또 젊고 잘생긴 관리를 뽑아 김생과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게 할 작정이다. 나는 숨어 있고 젊은 관리 하나로 하여금 가짜 사도 행세를 하게 해서 김생을 맞이하게 할 거다. 내 계획이 어떠하냐?”<sup>21)</sup>

20) 인권환, 『<가짜신선타령>과 <金剛誕遊錄>-형성과정과 관련양상 및 인물의 문제-, 『어문논집』 41-1, 안암어문학회, 1999에서는 <금강탄유록>과 실전 판소리 『가짜신선타령』과의 친연성을 논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선인견기담(仙人見欺談)이라 할 수 있는 <금강탄유록>이 구비설화의 “짜고 속여 망신주기” 유형에 해당하며 도가 부정과 신선 비판으로 변화된 시대적·현실적 의식의 변화에 수반된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논자가 예로 든 『林白湖와 縣監』은 1955년 3월 11일자 『自由新聞』에 실린 <故人逸事> 제10회에 실린 이야기로, 후술할 『신선에 집착하던 양반이 망신당하다』보다 훨씬 이후의 텍스트로 <금강탄유록>이 나 『가짜신선타령』의 근원 설화라 보기는 어렵다.

신생의 기만극은 가짜 귀신 서사의 기만극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공모자를 모집하고, 주인공이 믿을 만한 환경을 조성하며, 주인공의 욕망을 역이용하여 기만극 안으로 끌어들이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가짜 귀신 서사의 기만극이 주인공의 욕망을 사회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실현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짜 신선 서사의 기만극은 주인공의 욕망이 달성될 수 없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만극의 방향이 정반대인 것이다.

금강산에 오른 김생은 노인과 동자로 분장한 가짜 신선들을 만나 기만극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간다. 기만극의 절정은 이른바 ‘삼환지술’(三幻之術), 즉 신선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방술(方術)을 시험하는 장면이다. 노인으로서 분장한 가짜 신선은 김생에게 그가 속세의 태를 벗은 지 십수 년은 되었으니, 우선 신선이 되는 세 가지 방술을 써 봐야겠다고 말한다. 이어 단사수(丹砂水)라 속인 자근수(煮薑水)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붉게 물들이고, ‘적성(赤城)의 이슬방울’이라 속인 소와 사람의 오줌을 마시게 하며, 금광초(金光草)라 속인 쓴 나뭇잎을 억지로 삼키게 한다. 이 과정에서 김생의 반응이 주목된다. 오줌의 악취를 맡고도 ‘인간세계의 사람이라 참맛이 어떤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하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린다’고 말하고, 쓴 나뭇잎을 삼킨 후에는 ‘다시 먹으라고 할까 겁이 나서’ 거짓으로 ‘냉이처럼 맛이 달다’고 둘러댄다.<sup>22)</sup> 김생은 초월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감각적 진실마저 부정하고 노인의 말에 복종한다. 욕망이 판단을 마비시키고 감각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다. 그 결과 김생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된다.

21) 『금강산의 신선놀이』, 84쪽: “因相議曰: ‘金也來, 則必尋汝, 吾對之以『爲仙』云爾, 則彼則將信之, 而求上山矣. 然後擇其能吏多年齒者二老, 及衙童二青衣, 使之先上山脊, 教之如是如是, 又擇其官吏年少美好者, 俟彼遊山而還, 吾則隱而不見, 使少吏爲假伴以視之如何?’”(安瑞羽, 『金剛誕遊錄』, 640면) 이하 <금강탄유록>의 역문은 박희병·정길수 편역, 『금강산의 신선놀이』, 『세상을 훌겨보며 한번 웃다』, 돌베개, 2010을 참조하고, 원문은 朴熙秉 標點·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를 참조한다.

22) 『금강산의 신선놀이』, 89~91쪽: “凡以凡幻仙, 雖有七變九轉之道, 而汝則已脫俗日, 十六七年矣. 姑以三幻之術試之.” …又命童子曰: ‘取金光草進之!’ 卽以苦葉以進. 生嘗之, 味苦不敢近口, 生辭曰: ‘其味苦, 不忍吞下.’ 老人曰: ‘汝幻仙骨, 十已九矣. 汝不吞, 是功虧一簣也. 強爲吞之! 且有仙緣者, 則其味甘, 今爲苦於汝口, 只由塵緣之未盡磨耳.’ 生強吞之. 老人曰: ‘今則何如?’ 生恐其再進, 佯曰: ‘其味甘如薺矣.’ 老人曰: ‘固如是, 固如是耳.’ 三幻之術既試畢.”(<금강탄유록>, 642~643면)

기만극의 굴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인은 김생의 옷을 발가벗기고 었드리게 하여 불기를 20여 대 내리친다. 이렇듯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은 초월 욕망이 현실에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가짜 귀신 서사의 주인공이 잔치 자리에서 만인의 웃음거리가 되는 방식으로 수치를 경험했다면, 가짜 신선 서사의 주인공은 어둠 속에서 홀로 불기를 맞는 방식으로 굴욕을 경험한다. 폭로의 방식이 공개적이지 않다는 것, 즉 기만극이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짜 신선 서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은 김생에게 가족과 작별하고 돌아와 선계(仙界)에 노닐기를 제안하면서 천상에서 하루는 인간세계의 백 년과 같으니, 자네 부모 형제며 처자식이 어찌 그리 오래 살 수 있겠냐는 말을 덧붙인다. 이 말은 초월 욕망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단절, 즉 인간세계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며, 신선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함을 가르쳐주는 발화이다.

기만극의 전모가 드러나는 방식은 가짜 귀신 서사와는 판이하다. 금강산에서 내려온 김생은 가짜 사또에게 찾아간다. 김생은 노인의 말대로 400년이 지났다고 믿으며 관아를 찾아가 자신을 소개하고 서울 사동(社洞)의 고향집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집터만 남았다는 말을 듣는다. 가짜 사또가 아무 고을에 김생의 5대손이 산다는 거짓말을 하자, 이를 끝이곧대로 믿은 김생은 자신의 5대손이라는 자의 집을 찾아간다. 하지만 김생이 신선이 되었다고 믿게 만든 기만극은 이미 끝났고 김생의 5대손으로 지목된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황당한 상황을 맞이한다. 문전박대 당한 김생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 고을 사또를 찾아가지만 사또 역시 영문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 김생은 기만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을 신선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아무 고을 사또에게 김생은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일 뿐이다. 결국 불기를 맞고 쫓겨난 김생은 분을 참지 못한 채 자기 집으로 찾아간다. 가짜 귀신 서사에서 기만극의 기획자가 직접 기만극의 전모를 밝히고 주인공의 성장을 도모했다면, 가짜 신선 서사에서는 주인공에게 기만극의 전모를 알려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짜 신선 서사에서 기만극의 목적은 성장이 아니라 기만의 대상이 믿고 있는 세계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생은 서울 사동의 자기 집으로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신선이

되었다는 믿음이 사기극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김생이 기만극의 전모를 자각하는 순간 서사는 파국을 향해간다. 가짜 귀신 서사에서 기만극 이후 주인공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구되지만, 가짜 신선 서사에서는 가족으로부터의 추방이 그 결말이 된다. 초월 욕망은 사회적 재생산 체제를 부정하는 욕망이고, 그것을 욕망한 주인공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완벽히 배제되는 것이다. 결국 김생은 속임수에 빠진 것을 분해하다가 원한과 분노 때문에 병이 나고, 죽음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김생은 분을 참지 못하고 생각했다. ‘반드시 일가친척을 만나 이 일을 밝히고 나서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갈 테다.’ 그날로 당장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부모 형제와 처자식이 모두 살아 있는 게 아닌가. 이들은 김생의 얼굴이며 머리카락이며 수염이며 피부가 모두 붉은빛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김생을 피해 숨으며 말했다. “이런 괴이한 인간이 대체 어디서 왔담?” 가족들은 하인들을 불러 김생을 끌어내게 했다. 김생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 집 근처 평민의 초가집에서 지냈다. 김생은 속임수에 빠진 것을 분해하다가 원한과 분노 때문에 병이 나고 말았다. 죽음에 이르러 자기 집에 유언을 써서 보냈다.

나는 세상에 있으면서 이룬 일이 한 가지도 없다. 마침내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않고, 형님은 나를 동생으로 여기지 않으며, 아내는 나를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자식은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제 살아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생은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세상 사람들은 기이한 이야기라며 지금까지도 이 일을 전하고 있다.<sup>23)</sup>

김생의 몸은 신선이 되기 위한 술법을 행하느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가족들에게 김생은 그저 ‘괴인’(怪人)일 뿐이었다. 그 결과

23) 『금강산의 신선놀음』, 96~97쪽: “生不勝其憤, 自以爲: ‘必見宗族, 使曉此事而後, 可以更上金剛也.’ 卽日到其家, 生父兄妻孥俱存, 見生顔色髮膚皆赤, 大驚避匿曰: ‘如此怪人, 奚自?’ 命左右扶出之, 生不得已出, 舍于近其家常漢草屋, 自憤其見欺, 恨瀆成疾, 將終, 遺書其家, 曰: ‘吾在世, 一無所成, 而畢竟至於父兄不以爲子弟, 妻孥不以爲夫父, 生之何益?’ 遂絶. 世人至今傳爲奇談.”(<금강탄유록>, 646면)

‘변신’한 몸을 지닌 김생은 가족들로부터 직접 추방된다.

김생의 유언은 초월 욕망의 마지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아버지·아들·형제·남편·아버지라는 인간 세계의 모든 관계적 정체성을 잃은 자리에서 김생은 죽음을 선택한다. 초월 욕망은 불멸을 꿈꾸는 것이지만 욕망의 결과는 오히려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었다. 가짜 귀신 서사의 주인공과 달리, 김생은 부끄러움을 내면화하여 욕망과 사회 사이의 불일치, 즉 해소될 수 없는 아이러니를 자각하게 된 결과 이 세계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sup>24)</sup> 가짜 신선 서사는 김생의 초월 욕망이 끝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는 사회적 결말을 공동체의 기억으로 환기하기 위한 서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삼선기>(三仙記): ‘신선-되기’와 주체의 전회

<삼선기>(三仙記)<sup>25)</sup>는 <금강탄유록>과 마찬가지로 가짜 신선 서사를 내포한 작품이지만, 그 결말은 다르다. <금강탄유록>의 김생이 초월 욕망을 끝내 포기하지 못한 채 사회적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에 이르렀다면, <삼선기>의 이생은 기만극을 경유하며 초월 욕망을 승인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존재를 이전한다. <삼선기>는 초월 욕망이 파국이 아닌 주체가 전회(轉回)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가짜 신선 서사의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선기>의 이춘풍은 <금강탄유록>의 김생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초월적 존재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생의 초월 욕망은 김생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김생이 신선이 되겠다는 욕망을 공공연히

24) 이신복, 『金剛誕遊錄 研究』, 『국문학논집』 9,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1978, 114~117면에서는 <금강탄유록>이 ‘諷刺의 快味보다도 愚行의 懲罰에 더 焦點을 둔 作品’이라 평한 바 있다. 필자도 <금강탄유록>이 단순히 신선을 풍자한 소설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25) <삼선기>의 판권지에 따르면 1918년(대정 7)에 著作兼發行者 申龜永이 發行所 以文堂에서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제목에는 ‘古代小說 三仙記’라고 되어 있지만 고소설이 아니라 ‘신작 구소설(新作舊小說)’에 속하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신작 구소설에 대해서는 이정원, 『신작 구소설의 근대성-〈채봉감별곡〉·〈청년회심곡〉·〈부용상사곡〉을 대상으로-』, 『고소설 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참조. 본고에서는 『活字本古典小說全集』 제3권에 영인된 『三仙記』를 활용하되, 쪽수는 원본의 것으로 제시한다. 인용문의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는 인용자가 붙인 것이다.

드러냈다면, 이생은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신선설을 부정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서사의 발단에서 이생은 성애 욕망에 무감한 극단적인 도덕군자로 제시된다. 취실한 지 십여 년에 내외지정(內外之情)을 모른다는 설정은 이생이 인간세계의 기본적인 욕망조차 초월하려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는 성애 욕망을 지니면서도 이를 부정하던 가짜 귀신 서사의 주인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욕망의 구조이다.

이생의 성애 욕망은 처남의 방문을 계기로 처음으로 균열을 맞이한다. 이생의 처남 김시량은 이생이 성현의 도를 즐거워하는 것은 무방하나 후사를 두지 않는 것은 불효라고 지적한다. 이에 이생은 비로소 부인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는다. 하지만 이생의 경직된 도덕률이 깨진 것은 아니다. 후사를 잇는 사회적 의무를 다한 이생은 다시 자신만의 도덕률을 지키며 살아가간다. 결정적으로 이생의 도덕률이 깨지는 사건은 한량들에 의해 촉발된다. 한량들은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생을 붙들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이생의 도학을 깨트리고자 기생들을 시켜 이생을 유혹하게 한다. 그러나 흥도화와 류지연은 이생을 훼손시키는 대신 그를 본택으로 데려다 준다.

무학지를 넘어 흥제원에 이르니 모든 활랑드리 가마귀갓치 지저괴거늘 무슨 일이 잇는가 호야 헛치고 드러서니 흥 소년 남즈를 에웠쓰코 조롱호거늘 살펴보니 (….) 동탕 작약흔 티도와 단정 현양흔 풍치와 쇠락 정디흔 괴상이 천만인 중 데일이오 텃상 텃하에 웃듬이라. (….) 흥도화 양협에 소스며 미미히 웃는 모양 목단화 아참 이슬에 반쯤 쫓난 듯 쥬력에 곤호야 옥부처 갓흔 몸을 안상히 기우려 놓거늘 류지연이 늑아가 밧드러 고이 되서 누이고 밧그로 나갓드니 모든 활랑이 그 마음 돌리기를 원호거늘 (….) 이에 량인이 교즈에 되서 본택으로 인도호니라.<sup>26)</sup>

기만극의 본격적인 전개는 흥도화와 류지연이 남복(男服)으로 이생을 찾아와 제자 되기를 청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이생은 두 미소년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두 여자가 남장(男裝)으로 이생에게 접근하는 이 장면은 가짜 귀신 서사에서 기생이 가짜 과부로 분장하여 주인공에게 접근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sup>27)</sup> 그러나 가짜 귀신 서사의 가짜 과부가 성애 욕망을

26) <삼선기>, 14~16면.

27) 기생으로 등장하는 <종옥전>의 향란과 달리, 「오유란전」과 「혹기위귀」에서는 주인공을 유

촉발하는 기제였다면, <삼선기>의 가짜 남성 제자들은 성애 욕망과 더불어 초월 욕망을 촉발하는 기제로 기능한다.

초월 욕망의 본격적인 발현은 이생이 두 제자와 함께 대성산(大城山)을 유람하는 장면에서 이루어진다. 두 제자는 대성산의 석대(石臺)에 얽힌 신선 이야기를 이생에게 전하며 그의 초월 욕망을 자극한다. 이생이 부귀와 주색을 멀리하는 것을 신선으로서의 본분으로 해석하는 논리는, 이생 스스로도 어렴풋이 품고 있던 자기 인식을 외부에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이생은 사양하면서도 석대의 돌 틈에서 바둑돌을 발견하고는 이를 신기하다며 품에 넣는다. 초월 욕망을 부정하는 말과 그것을 탐하는 행위 사이의 불일치가 여기서 드러난다.

리공이 청파에 침음 반향에 왈, “예부터 신선이란 말이 잇기로 스기에 전호얏고, 조선에도 강원도 고성 삼일포는 옛적에 신동 둘이 너려와 영랑 술랑이라 조청호고 삼일을 놀다 갖기로 지금까지 삼일포란 일홈을 전호얏고, 최고운 선성이 합천 가야산에 드러가 화식을 먹지 아니코 잇다가 간 곳을 모로기로 신선 되야 갖다 호되, 도모지 황당헌 일이니 엇지 미드리오?” (….) 말이 맞지 못 호야 리공이 돌 틈에서 바둑 두 기를 어드니, 호노흔 푸르고 호노흔 불그되 옥은 아니오 지극히 가뵤업고 모양이 기묘호고 글췌 모양이 은은호거늘, 조서히 보니 불근 바둑에는 ‘선리’ 이 쓰요, 푸른 데는 ‘진인’ 이 쓰를 쓰췌되 용사 전췌 갖고 예스 글시는 아니라. 신기호야 랑싱을 보이지 아니코 랑중에 너오니 랑랑은 보앗스나 못 본 체 호고 … 리공이 지삼 손샤호고 왈, “이 일이 허탄호니 변설치 말나.”<sup>28)</sup>

기만극의 정점은 이생이 대성산의 석실에서 가짜 선녀를 만나는 장면에서 이루어진다. 가짜 선녀 도홍선이 이생에게 천상에서의 전생 인연을 들려주자, 신선설을 부정해 온 이생이 선녀의 말에 설득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생의 초월 욕망과 성애 욕망이 선녀와의 만남이라는 서사적 장치 속에서 하나로 합류되어 성취된다. 이생은 선녀와의 합일을 통해 초월적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성애 욕망을 동시에 충족시킨다.<sup>29)</sup>

호하려는 기생이 가짜 과부로 등장한다.

28) <삼선기>, 24~26면.

29) 이생이 가짜 선녀와 합일하는 장면은 「구운몽」의 영향이 감지된다. 「구운몽」에서 양소유는 정경패가 기만극에 속아서 가짜 신선이자 가짜 귀신인 가춘운과 잠자리를 거듭 가진다. 정

량량이 잠을 빼여 일시에 복디 사죄 왈, “빅년 결활이 지중호와 천첩 등이 디 군즈의 중죄를 지었스오니 츄싱 츄세에 엇지 다 속호호며 디군즈의 여턴디덕을 세세싱싱에 엇지 다 갑스올잇가? 일월 갓스오신 군즈의 안광으로 엇지 몰노보시 리잇가? 첩 등을 어엇비 너기스 용서호심인가 호노이다. 당초에 녀화위남 호야 몇 달 피실 씨와 평싱을 빈온다 호야 피시고 느려올 씨는 혹 분번치 못 호실 뜻 호웁고 첩 등의 죄상도 오히려 용서호심을 바라라니와 허황호 흘게로 선녀를 가탁호야 정디호오신 군즈를 산상에 유인호와 연분을 믿는다 호음은 죄상이 만스 무석이라. 그러호오나 하향 천첩 등이 디군즈의 권고지탁을 바즈오니 오날 죽어도 한이 업슬지라. 복망 디군즈 서방님께웁서 용서호웁소서. 중금 이후는 첩 등의 스싱영육이 서방님께 달녇스오니 하히지탁을 바라노이다.”<sup>30)</sup>

기만극의 전모가 폭로되는 것은 두 제자가 여복(女服)으로 갈아입고 이생에게 자초지종을 고백하는 장면에서이다. 두 여성은 허황한 흘게로 선녀를 가탁해야 정대한 군자를 산상에 유인하여 연분을 맺은 죄상이 만사무석(萬死無惜)이라며 고두사죄한다. 이에 이생은 자신의 공부가 부족한 까닭이니 원망할 것이 없다고 답한다. 이 장면은 <금강탄유록>의 김생이 기만극의 전모를 알고 분노와 원한으로 병이 든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생은 기만극에 빠진 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탓으로 자책하고 수용한다. 부끄러움을 내면화하되 그것을 원한으로 전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기만극의 폭로 이후 이생의 행보는 <금강탄유록>의 김생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생은 흥남·유남과 함께 교방(敎坊)을 설립하고 평양의 음악과 풍류 문화를 이끄는 인물로 자리잡는다. 이생은 음률에 모를 것이 없고 오입 속이 능통하여 평양 제일의 명기들도 이생을 따르게 된다. 이는 초월 욕망이 현실 세계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세계를 초월하려는 욕망을 가진 인간이 세속의 세계에서 최고의 풍류를 구현하는 자로 존재를 이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생은 방탕한 사또 자제와 그를 부추긴 노영철과 옥경선의 모해를 받아 장기(長鬢)로 유배를 가게 되고 교방도 폐지된다. 이생의 유배는

경계의 기만극에는 정사도, 정집삼, 가훈운 등 정씨 집안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 양소유를 속이고 웃음으로 화해한다. 줄고, 앞의 논문, 157~158면 참조.

30) <삼선기>, 50~51면.

이러한 욕망의 재배치가 불완전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생의 초월 욕망은 사회적 규범의 측면에서 여전히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생은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신관 사또의 생일잔치에 나타났다가 다시 유배를 떠나게 된다. 신관의 생일잔치 중에 멀리서 이생이 통소를 붙자 그를 따르던 기생들이 모두 이생을 맞이하여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난 신관은 이생과 더불어 홍도화와 류지연 등을 엄장하고 이들 모두반월도(半月島)로 유배를 보낸다.

리춘풍 네 드르라. 너는 본디 량반의 즈손으로 학업을 힘써 립신양명 하야 우호로 명왕을 튥성으로 섬기고 아리로 부모조상을 영화로 밧들고 일흠을 죽빅에 드리움이 디장부에 스업이어늘, 경향에 출몰하야 주식에 침면하니 파락호 즈제의 형위를 면치 못호고 또 유무죄간에 살옥을 당하니 인즈에 골육이 전를홀 일이라. 전관이 특별 관유하야 정비지경에 처호얏스니 희빅히는 날에 기과천선 하여 고향에 도라가 스즈에 직업을 슈척홀 거시어늘, 구습을 잊지 못하여 도로 느려와 요괴호 통소 소리로 모든 창기를 유인하야 소위 감스의 노름을 희롱하니 죄상이 엇더호뇨.<sup>31)</sup>

신관의 말을 통해, 양반에서 모갑이로 존재를 이전한 이생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첫 번째 유배는 기존 교방 세력인 노영철과 옥경선의 저항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 볼 수 있지만, 반월도로의 두 번째 유배는 위의 인용에서 보듯 양반의 자손으로서 입신양명으로 충성하고 부모공경으로 효를 다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처벌에 해당한다.

서사의 결말에서 이생은 홍낭·류낭과 함께 대성산 아래 초당으로 돌아와 세상의 영욕과 궁달을 부운에 붙여 버리고 양낭과 더불어 살아간다. ‘세상 사람이 이들을 지상삼선(地上三仙)이라 하더라’는 마지막 문장은 이생이 최종적으로 정착한 자리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생은 천상의 신선이 되는 초월 욕망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인간세계 안에서 신선에 준하는 존재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는 초월 욕망이 부정당하여 파국에 이른 <금강탄유록>의 결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이다.

31) <삼선기>, 82면.

리춘풍이 량량으로 더부러 디성산 아리 초당으로 도라와서, 세상의 영욕 궁달은 부운에 붓쳐버리고 량량으로 더부러 금서의 생활이 즈족하고 흥·류 량량의 게 일남일녀씩 노아 츠례로 길너 성취후 후, 여년을 화란춘풍으로 맞천지라. 세상 스람이 이르되 디상습선이라 헛더라.<sup>32)</sup>

<삼선기>에서 기만극은 이생의 초월 욕망을 폭로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인간세계 안에서 실현가능한 형태로 재배치하는 기능을 한다. 초월 욕망의 지향이 천상의 신선에서 지상의 신선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의 전회가 가능했던 것은, 이생이 부끄러움을 수용하고 기만극의 의미를 자신의 성찰로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가짜 신선 서사에서 주체의 향방은 부끄러움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금강탄유록>과 <삼선기>의 대비를 통해 분명해진다. 부끄러움을 원인으로 내면화한 김생은 파국을 맞이하지만, 부끄러움을 성찰로 수용한 이생은 지상선으로 전회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상선이 되었다는 결말은 이생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승인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삼선기>의 결말은 다소 느닷없는 감이 없지 않다. 통소 사건으로 2차 유배를 보낸 신관 사또가 갑자기 이생의 용모와 위의를 칭찬하며 사령에게 귀양 간 이생을 탐지하게 한 뒤 이생과 흥·류 양당의 청아한 사업을 계속하라고 허락하는 장면은 서사적 합리성이 부족하다. 지상선이라는 명명도 세상 사람들이 이르는 말일 뿐 신선의 대체재라 보기 어렵다. 이춘풍이 ‘양낭과 더불어 대성산 아래의 초당에서 금서(琴書)의 생활에 자족하는 한편 흥도화와 류지연에게 1남 1녀씩을 낳아 성취하고 여년을 화란춘풍(花爛春風)으로 마쳤다’는 결말부의 서술은 풍류남아 이생 역시 결국 세속적인 삶에 안주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생이 도학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모갑이로 이전시킨 것이 새로운 가치의 추구이자 성장을 의미하며 이로써 <삼선기>가 근대적 지향을 지닌다고 긍정적으로 평한 바 있다.<sup>33)</sup> 하지만 <삼선기>의 결말이 꼭 긍정적 의미만을 지

32) <삼선기>, 90면.

33) 이기대, 『<三仙記>의 인물형상과 지향가치의 실현방식』, 『한국학연구』 3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0은 <삼선기>의 인물들이 정형성을 탈피하여 갈등과 결핍 속에서 능동적으로 자아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변화시켰으며 이생과 흥도화, 류지연이 진정한 자기(知己)가 되

닌 것은 아니다. 이생은 한량들에게 도학을 부정당했고 흥도화와 류지연의 기만극을 경유하며 욕망을 표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갑이가 되어 도학과 풍류를 절충하려 하지만 2차례에 걸친 유배로 사회적 처벌을 당한다가 주요 서사의 주요 내용이다. 지상선으로 불렸다는 것은 마지막 한 줄의 서술일 뿐 이생의 말년은 흥·류 양남에게 1남 1녀씩 얻어 성취하여 여년을 마치는, 신선의 삶이 아닌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산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삼선기>에서도 초월 욕망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다.

#### IV. ‘가짜로 속이기’ 서사의 소설사적 조망

‘가짜로 속이기’ 서사는 19세기를 전후하여 구비서사와 국문서사의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서사적 변주를 거듭하는데, 그 양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가짜 신선 서사 계열로, 초월 욕망에 대한 권력의 폭력적 탄압에서 사회적 망신으로 기만극의 성격이 변화한다. 다른 하나는 가짜 귀신 서사 계열로, 주인공의 별거벗은 신체를 그로테스크하게 노출함으로써 주체를 탈신비화하는 풍자의 방향으로 변화한다.

가짜 신선 서사의 변주는 프랑스 신부 리델 및 파괴외방전교회의 한국어 교재 『한어문전』(*GRAMMAIRE CORÉENNE*, 1881)의 『EXERCISES GRADUÉS』에 실린 <신선에 집착하던 양반이 망신당하다>(UNE MONOMANIE SPIRITISTE CONFONDUE)에서 확인된다.<sup>34)</sup> 제주 목사

어 본성에 충실한 삶을 상징하는 지상선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했다고 보았다. 최천집, 『<삼선기>에 나타난 정체성 찾기 과정』, 『대동문화연구』 7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은 주인공 이생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새로운 가치관을 모색하고 내면의 변화를 겪는 과정이 정체성 찾기 과정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삼선기>가 성장소설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한편 김진영, 『<삼선기>에 나타난 서사관행의 변주와 문학사적 의의』, 『우리말글』 102, 우리말글학회, 2024는 <삼선기>가 애정소설의 전통적 서사 관행을 변주하여 개인의 자유의지와 개척적 삶을 부각시킴으로써 근대적 지향을 지닌다고 평했다.

34) 한장훈, 『강릉매화타령을 통해 본 판소리 失傳 辭說의 특성 검토』, 『강원문화연구』 44,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21, 43~46면에서, 최전승 교수가 『한어문전』과 독일인 신부 에카르트(P. Andreas Eckardt)의 『조선어교제문전』(*Koreanische Konversations-Grammatik mit Lesestücken und Gesprächen*, 1923)에서 찾아낸 ‘한라산 가짜 신선’ 설화를 소개한 바 있다. 본고에서 언급한 『신선에 집착하던 양반이 망신 당하다』는 『한어문전』의 뒷부분에 21번째

가 신선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공공연히 드러내자, 아전들이 서로 의논하여 기만극을 기획한다는 것이 작품의 기본 구조이다. 아전들은 목사의 초월 욕망을 간파하고 이를 역이용하는데, 그 방식이 흥미롭다. 아전들은 목사를 축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만극을 활용한다. 이는 <금강탄유록>과 <삼선기>에서 기만극의 기획자가 주인공과 동등하거나 우위에 있는 양반 계층이었던 것과 달리, 하위 계층인 아전들이 기만극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만극의 진행 방식은 <금강탄유록>의 그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아전들은 외모가 뛰어난 아이 둘을 골라 의복을 갖추어 입히고, 좋은 병에 말 오줌을 한 병 가득히 넣어 들고 산에 올라가 통소를 불게 한다. 목사는 신선의 소리라 믿고 찾아가 동자에게 절을 올린다. 동자들은 자신들이 먹는 술을 권한다며 말 오줌을 권하는데, 목사는 두 손으로 받아 마시며 ‘인간에서 어찌 이런 술을 맛볼 수 있사옵나잇가’라고 답한다. <금강탄유록>에서 소 오줌과 사람 오줌을 선약이라 속여 마시게 하는 것과 동일한 서사적 장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제 안희를 ㄱ르치며 굴으디, “너는 내게 몇디 손즈 며느리 되는 사름이냐? 쪽전에 우리 마누라와 ㄱ다.” 하니 온 집안 사름이 다 우스와 견딜 수 업고 또 아 들드려 왓, “너는 몇디 손즈가 되느냐?” 아들이 굴으디, “엇지 말슴을 그러케 ㅎ

---

자료로 실려 있다. 원제인 ‘UNE MONOMANIE SPIRITISTE CONFONDUE’를 직역하면 ‘폭로된 심령적 편집광’이지만 본고에서는 의역하였다. 『조선어교재문전』에 실린 『한라산 신선 이야기』도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목스 츠츠 정신을 츠러 생각하미 아전의게 속은 줄을 알고 그제야 붓그러움을 이기지 못하야 코를 싸취고 방으로 드러가 출입을 못하고 늙어 죽도록 방에만 잇섯다더라.”라는 결말부는 완전히 다르다. “부끄러워 출입을 못하고 늙어 죽도록 방안에만 잇섯다”와 “분함을 이기지 못하는 한편 부끄러운 것이 늙어 참으로 병이 되어 고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결말은 완전히 다르다. 이예지, 『가짜신선이야기의 변천 양상과 의미』, 『우리文學研究』 89, 우리문학회, 2026, 69~73면에서도 <금강탄유록>, <가짜신선타령>, 『神仙이되기까지』를 함께 논하며 『한라산 신선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결말부의 차이에 주목하지는 않았다. 한편, 신상필, 『과외외방전교회가 남긴 동서양 문명교류의 흔적 - Grammaire Coréenne(1881) 소개 단형고전서사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359~367면에서 『한어문전』에 실린 <EXERCISES GRADUÉS>를 일별했다. 다만 『UNE MONOMANIE SPIRITISTE CONFONDUE』의 내용을 ‘신선 타령으로 관원들에 속은 제주감사’라 정리하고 소화로 분류하였지만, 개별 작품을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았다.

시웁노잇가? 제주 | 목스로 가신지 겨유 칠팔삭이 되였는디 여러 천년이란 말슴 이 웬일이오며 과만이 츠지 아니호야 무슴 연고로 오시오며 하인은 엇지 호나도 업시 와 계시오잇가?” 츠츠 명오가 씨여 생각호니 그 아전들의게 분명이 속은 줄을 씨듯고 분함을 이기지 못호여 왓, “신선이 도타 호더니 그런 괴악호 거시 어디 잇겠느냐!” 호며 밧긔 누설치 말나 호였더니, 즈연이 밧긔 전호야 일가와 친구들이 보기를 위호야 오면 호상 칭병호고 나가지 아니호더니, 붓그러온 거시 늙어 줌으로 병이 되어 고치지 못호고 죽으니, 제주에서 포목더전을 여러 백냥 가져왔다 호느니라.<sup>35)</sup>

<금강탄유록>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만극의 폭로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있다. <금강탄유록>에서 기만극의 전모는 끝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김생의 귀환 이후 붉게 변신한 신체로 인해 가족들에게 직접 축출 당한다. 반면 이 작품에서는 아들의 말을 통해 폭로가 이루어진다. 아들은 제주 목사로 간 지 겨우 칠팔 삭이 되었는데 여러 천 년이란 말쑤이 웬 일이냐며 기만극을 직접 지적한다. 이에 목사가 깨달아 생각하니 그 아전들에게 분명히 속은 줄을 깨닫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목사는 ‘신선이 좋다 하더니 그런 괴악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며 신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 주목할 것은 이 작품에서 기만극 이후 주인공이 맞이하는 결말이다. 목사가 바깥에 누설치 말라고 하였지만, 자연스럽게 밖에 전해져서 일가와 친구들이 보기를 위하여 오면 항상 칭병하고 나가지 아니하더니 부끄러운 것이 늘어서는 병이 되어 고치지 못하고 죽었는데 제주에서 포목 대전을 여러 백냥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서사의 결말이다. 초월 욕망이 부끄러움으로 폭로되고 그 부끄러움이 내면의 병이 되어 죽음에 이른다는 결말은 <금강탄유록>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만극을 기획한 주체가 아전이라는 하위 계층이라는 점에서, 기만극의 의미는 계급 내부의 교양이나 성장이 아니라 계급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조롱과 보복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된다. 이는 ‘가짜로 속이기’ 서사가 하층의 서사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통치에는 변변치 못한 권력이면서 ‘신선-되기’라는 초월 욕망만을 추구하는 상층 계급에 대한 풍자적 성격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5) 『한어문전』, 14면.

가짜 귀신 계열의 변주는 실전 판소리 <강릉매화타령>의 대본이라 할 수 있는 <梅花歌라>에서 확인된다. <매화가라>에서 기만극의 대상이 되는 골생원은 ‘가짜로 속이기’ 서사의 주인공들과 유사하다. <매화가라>에서 강릉 사또는 골생원을 속이기 위해 매화를 숨겨두고 허장(虛葬)하여 무덤을 만들고 강릉 명기 매화지묘(梅花之墓)라는 목비(木碑)를 세워둔다. ‘가짜 무덤’이라는 서사 표지가 ‘가짜로 속이기’ 서사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짜 귀신 매화가 골생원을 찾아가는 장면 역시 ‘가짜로 속이기’ 서사의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그러나 『매화가라』에서 기만극의 클라이맥스는 다른 ‘가짜로 속이기’ 서사와 현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구현된다. 매화는 골생원을 벌거벗게 만들어 동아줄로 허리를 감아 경포대로 끌고 경포대로 가는 장면은 골생원의 벌거벗은 신체를 전면에 노출시킨다. 경포대의 잔치 자리에서 골생원이 그로테스크한 신체를 드러내고 춤을 추는 장면에서, 골생원의 신체는 과장되고 희화화된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다.<sup>36)</sup> 결국 사또가 담배로 바짝 지지자 골생원도 깜짝 놀라 본인이 귀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깨닫는다. 감각적 경험을 부정한 <금강탄유록>의 김생과 반대로 골생원은 감각적 자극으로 인해 현실을 깨닫게 된다. ‘어와 세상 사람들이 골생원으로 볼지라도 주색 탐을 부디 마소’라는 경계의 말이 덧붙는 것은 ‘가짜로 속이기’ 서사의 결말 공식과 동일하다.

미화 옛자오디, “우이난 먹거도 卍上사암 모오나이다.” 骨生員 連日不食 줄인 쫓 주옥을 실거 먹고 陽지 굿티 안즈던이, 使道 分付히되, “미화을 상각허어 魂 영이덜 아이 조을손야.” 온갓 風流 다할 적의, 미花 骨生員다여 하는 말이, “우이道 함그 놀고 가사.” 미화 춤추며, “지아즈 조을싱고.” 한창 이니 로일 저귀, 骨生員 흥이 낫서 미화 함그 더무할 제, 제옥닷이 쭈드이며 곱배팔 니들으며 쥬적거이 노일 적의, 사도 담비잔을로 밧삭 지지이, 骨生員 감작 놀니야 본이, 인간이 分明하다. 어와 卍上사암덜야, 骨生員으로 볼지아도 쥬삭 탐을 부디 마소.<sup>37)</sup>

36) 신호림, 「<강릉매화타령>에 나타난 욕망의 성격과 정계의 의미」, 『어문론총』 84, 한국문학 언어학회, 2020, 50~55면에서는 골생원의 욕망을 분석하여 그가 근본적인 불안을 내포한 19세기 소외된 양반의 잉여적 면모를 보인다고 보았다.

37) 『梅花歌라』, 128~129면. 본고에서 인용한 『梅花歌라』는 김기형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35』적벽가·강릉매화타령·배비장전·무속이타령·웅고집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앞서 성애 욕망을 지닌 가짜 귀신 서사의 주인공들이 기만극 이후 부끄러움을 수용하고 성장의 서사로 나아간 반면, 『매화가라』의 골생원은 성장의 여지 없이 서사가 종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골생원의 그로테스크한 신체 묘사는 ‘가짜로 속이기’ 서사에서 주인공의 내부에 집중되었던 서사적 초점이 외부로 이동한 결과이다. 『오유란전』에서 이생의 별거벗은 신체가 묘사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서사의 중심에 놓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매화가라』에서 골생원의 신체는 기만극의 효과를 산출하는 핵심 장치가 된다. 이는 ‘가짜로 속이기’ 서사가 구비 서사의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내면의 성찰보다는 신체의 노출과 탈신비화를 통한 웃음의 생산에 서사적 목적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변주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짜로 속이기’ 서사는 한문소설에서 구비서사와 국문서사로 확산·재현되면서 서사적 변주를 거듭한다. 가짜 신선 계열에서는 기만극의 기획 주체가 동등한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이동하고, 기만극의 목적이 교양과 성장에서 조롱과 보복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가짜 귀신 계열에서는 기만극의 효과가 내면의 각성에서 신체의 노출과 탈신비화로 이동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변주의 양상은 ‘가짜로 속이기’ 서사가 특정 계층의 교양 서사로 출발하여 점차 광범위한 향유층을 향한 풍자와 해학과 풍자의 서사로 전환되는 소설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본고는 ‘가짜로 속이기’ 서사를 내포한 고소설 중 가짜 귀신 서사를 보이는 <종옥전>·<미인계>와 가짜 신선 서사를 보이는 <금강탄유록>·<삼선기>를 대상으로, 성애 욕망과 초월 욕망이 서사 내에서 허용되거나 부정되는 방식을 살피는 한편 욕망하는 주체의 향방을 조망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짜로 속이기 서사는 ‘가짜 귀신’ 서사와 ‘가짜 신선’ 서사의 두 유

형으로 분기되며, 이 두 유형은 기만극이라는 공통의 서사적 기제를 공유하면서도 주인공이 지닌 욕망의 성격에 따라 상황의 전개와 결말이 달라진다. 가짜 귀신 서사의 주인공은 성애 욕망을 지니면서도 처음에는 이를 부정하지만, 기만극을 경험한 뒤 자신의 욕망을 승인하며 성장하게 된다. 반면 가짜 신선 서사의 주인공은 초월 욕망을 지니면서도 처음에는 그것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기만극을 경험한 뒤 자신의 욕망이 달성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둘째, 두 유형의 서사에서 기만극이 일으키는 부끄러움은 일종의 사회적 제재로 작동하며, 주인공이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서사의 결말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다. 가짜 귀신 서사에서 <종옥전>의 종옥과 <미인계>의 종옥은 수치의 경험을 통해 욕망의 탈주 상태를 재영토화하고 사회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성애 욕망을 실현하며 정상 세계로 귀환한다. 가짜 신선 서사에서는 부끄러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주체의 향방이 엇갈린다. <금강탄유록>의 김생은 부끄러움을 원인으로 전화하여 사회적 관계망 전체로부터 배제되는 파국에 이르고, <삼선기>의 이생은 부끄러움을 성찰로 수용하여 초월 욕망을 지상선이라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재배치하는 전회에 이른다.

셋째, 각 작품은 동일한 서사적 열개를 공유하면서도 서사화의 방식에서 개별적인 차이를 보인다. <종옥전>이 전기소설의 기법을 투사하여 성애 욕망의 긍정을 아화(雅化)된 방식으로 서사화했다면, <미인계>는 저술자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워 기만극을 병법으로 명명하고 주체의 회귀 과정을 직접 해설하는 방식으로 서사화하였다. 종옥도 귀신이 되는 동화의 방식이 아니라, 귀신이 된 향란을 인간이 되게 만드는 종옥의 노력이 서사적 긴장을 만들어낸다. <금강탄유록>이 초월 욕망의 파국을 주인공의 내면적 분열과 사회적 추방이라는 방식으로 형상화했다면, <삼선기>는 초월 욕망의 전회를 지상선이라는 대안적 존재 방식의 발견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서사 유형이 개별 작품의 장르적 지향과 창작 시기, 향유층의 망탈리테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가짜로 속이기 서사는 한문소설에 국한되지 않고 구비서사와 국문 서사의 영역으로 확산 및 재현되면서 서사적 변주를 거듭한다. 가짜 신선

계열에서는 기만극의 기획 주체가 동등한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이동하고 기만극의 목적이 교양과 성장에서 조롱과 보복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가짜 귀신 계열에서는 기만극의 효과가 내면의 각성에서 신체의 노출과 탈신 비화로 이동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가짜로 속이기 서사가 특정 계층의 교양 서사로 출발하여 점차 광범위한 향유층을 향한 풍자와 해학의 서사로 전환되는 소설사적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가짜로 속이기 서사는 단순한 속임수 서사가 아니라 욕망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서사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허용되는 욕망과 금지되는 욕망은 기만극이라는 역설적 기제를 통해 폭로되고 승인되거나 부정되며, 그 과정에서 욕망하는 주체는 성장하거나 파국에 이른다. 가짜가 진짜를 낳고, 역설이 진실에 도달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짜로 속이기 서사는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규범 사이의 길항 관계를 서사화하는 방식으로서 조선 후기 소설사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는 선행 연구의 검토와 개별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가짜로 속이기’ 서사와 인접한 서사 유형들, 예컨대 <배비장전>·<이춘풍전> 등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이 서사의 소설사적 위상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하는 작업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나아가 욕망의 레짐이라는 관점에서 가짜로 속이기 서사를 보다 체계적인 이론적 틀 안에서 분석하는 작업 역시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 <金剛誕遊錄>(박희병·정길수 편역, 『금강산의 신선놀음』, 『세상을 훌겨보며 한번 웃다』, 돌베개, 2010; 朴熙秉 標點·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 <梅花歌라>(김기형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35)적벽가·강릉매화타령·배비장전·무숙이타령·옹고집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5).
- <美人計>(『(開化期文學)新小說全集』 18, 啓明文化社, 1987).
- <三仙記>(『活字本古典小說全集』 제3권).
- <鍾玉傳>(신해진, 『朝鮮後期 世態小說選』, 일인, 1999).

### 2. 단행본

- 미셸 푸코 지음, 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 1, 제3판, 나남, 2010.
-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GRAMMAIRE CORÉENNE(韓語文典), YOKOHAMA: L. LÉVY ET S. SALABELLE, 1881.
- P. Andreas Eckardt, Koreanische Konversations-Grammatik mit Lesestücken und Gesprächen(朝鮮語交際文典), Heidelberg: Julius Groos, 1923.

### 3. 논문

- 김유진, 『한문소설 ‘가짜로 속이기’ 서사의 구조와 의미-<종옥전>(鍾玉傳), 『오유란전』(烏有蘭傳), 『혹기위귀』(惑妓爲鬼)를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70,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26, 141~188면.
- 김영미, 『수치심의 정동으로 읽는 고전 서사-열녀 이야기와 채절소설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89, 국어문학회, 2025, 1~25면.
- 김진영, 『<삼선기>에 나타난 서사관행의 변주와 문학사적 의의』, 『우리말글』 102, 우리말글학회, 2024, 309~338면.
- 박상석, 『한문소설 <鍾玉傳>의 개작, 활판본소설 <美人計> 연구』,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235~267면.
- 신상필, 『파리의방진교회가 남긴 동서양 문명교류의 흔적 - Grammaire Coréenne(1881) 소재 단행고전서사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349~380면.

- 신호림, 「<강릉매화타령>에 나타난 욕망의 성격과 징계의 의미」, 『어문론총』 84, 한국국학언어학회, 2020, 37~58면.
- 이기대, 「<三仙記>의 인물형상과 지향가치의 실현방식」, 『한국학연구』 3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0, 123~148면.
- 이신복, 「金剛誕遊錄 研究」, 『국문학논집』 9,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1978, 105~119면.
- 이예지, 「가짜신선이야기의 변천 양상과 의미」, 『우리文學研究』 89, 우리문학회, 2026, 53~87면.
- 이정원, 「신작 구소설의 근대성-〈채봉감별곡〉·〈청년회심곡〉·〈부용상사곡〉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231~264면.
- 정혜경, 「감정과 이성의 역할, 인간학으로서 휘절소설」, 『국제어문』 74, 국제어문학회, 2017, 61~84면.
- 조은상, 「<종옥전>에 나타난 성적 불안 극복과 아버지 세계로의 회귀」, 『문학치료연구』 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137~170면.
- 최천집, 「<삼선기>에 나타난 정체성 찾기 과정」, 『대동문화연구』 7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287~319면.
- 한창훈, 「강릉매화타령을 통해 본 판소리 失傳 辭說의 특성 검토」, 『강원문화연구』 44,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21, 31~53면.

## Desire and the Subject in “Deceptive Simulation Narratives”

Kim, Yuji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eceptive Simulation Narratives” in Korean pre-modern fiction from the 17th to the early 20th century to identify the regime of desire through which desire is produced, deployed, and managed by power and discourse. These narratives employ narrative markers such as Simulated ghosts or Simulated transcendents to deceive and enlighten the protagonist through a form of role-play. By analyzing how erotic desire and transcendental desire are processed through these deceptive mechanisms, this paper explores the existential trajectories of the desiring subject.

The second chapter analyzes *Jongokjeon* (鍾玉傳) and *Mingye* (美人計), which feature simulated ghost narratives. Erotic desire is a “productive desire” that presupposes mortality and contributes to social reproduction, making it conditionally permissible within the social system. While the deception temporarily places the subject in a state of “bare life” and exposes their hidden desire to ridicule, the subject eventually re-territorializes this desire into the social order through the experience of shame, walking the path of “growth” and “return”.

The third chapter examines *Geumgangtanyurok* (金剛誕遊錄) and *Samseongi* (三仙記), which feature Simulated transcendent narratives. Transcendental desire is categorized as an “unproductive desire” subject to strong sanctions because it seeks transcendence and denies the foundation of social reproduction. In *Geumgangtanyurok*, the subject realizes that transcendental desire is an unattainable illusion and ultimately faces “catastrophe,” being completely excluded from the social relationship network. Conversely, the subject in *Samseongi* internalizes shame as a form of reflection, reaching a “shift” (conversion) and “existential exile” by re-deploying the transcendental desire into a new mode of existence as a “terrestrial transcendent”.

The fourth chapter provides a historical overview of how these narrative patterns

evolved as they spread into oral and vernacular forms in the 18th century. The transition from the physical violence of absolute power to social shame, along with the de-mystification of the subject through grotesque exposure, illustrates the evolution of power technologies for controlling desire.

In conclusion, the “Deceptive Simulation Narratives” are not merely a record of tricks but a paradoxical narrative of governance and resistance. It demonstrates how the desiring subject, mediated by the social sanction of shame, either settles into the social system or escapes its boundaries through existential flight.

Keyword: Deceptive Simulation Narratives, Simulated Ghost, Simulated Transcendent, *Jongokjeon* (鍾玉傳), *Mingye* (美人計), *Geumgangtanyurok* (金剛誕遊錄), *Samseongi* (三仙記)

접수일자: 2026. 3. 31.

심사기간: 2026. 4. 1.~2026. 5. 10.

게재결정: 2026. 5. 10.

